

## 오타루 번영기의 요정과 호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홋카이도에서 가장 호화로운 요정과 호텔은 오타루에 모여 있었습니다. 1865년에 300세대 정도의 작은 어촌으로 시작된 오타루는 다음 세기로 바뀔 때까지 인구 약 6만 명의 변화한 항구 도시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오타루의 청어 연간 어획량은 9만 톤 가까이 달했습니다. 청어가 많이 잡히면서 어부와 상인은 부를 얻었고, '청어 골드러시'를 이용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오타루로 몰려들었습니다. 청어의 대부분은 비료로 가공되어 혼슈 남서부의 목화밭과 쪽밭에서 사용하기 위해 출하되었습니다.

### 새로운 부와 여가

새로이 부를 얻은 가문들은 교토와 호쿠리쿠에서 도호쿠 지방 등 북쪽으로 향하는 연안 도시에 있는 항구를 통해 최고급 가구와 의류, 건축 자재를 수입하여 오타루에 저택을 지었습니다. 부유층을 위한 요정과 화랑이 생겼고, 일본 국내외에서 온 상인들을 수용하는 료칸과 호텔도 문을 열었습니다.

### 호화로운 엔터테인먼트

부유한 상인, 어부, 정치인, 유명인을 대접하기 위해 문을 연 고급 요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수입 유리로 된 창문, 가스등 샹들리에, 외국산 나무를 조각해 만든 장식품, 그리고 춤과 노래, 연주 등을 선보이기 위한 대형 연회장과 무대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다이쇼 시대(1912년~1926년)에는 약 600명의 게이샤가 이러한 고급 요정에서 오타루의 부유층을 대접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경제가 침체되면서 대부분의 요정이 문을 닫았고 상인 가옥들은 이전되었습니다. 가이요테이 요정과 고테이 요정 등 현재도 남아 있는 건물이 몇 군데 있지만, 개수를 위해 폐쇄되었거나 민간 시설로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이요테이 요정은 1885년에서 1890년 사이에 사카이마치 거리 근처에서 문을 열어 2015년에 폐점할 때까지 상인, 정치인, 유명인을 대접했습니다. 가이요테이 요정은 다이쇼 시대에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현재의 건물은 서로 다른 시기에 지어진 3채의 건물이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테이 요정은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인기 요정의 지점으로 1937년에 오타루의 고급 주택가인 시노노메초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타루의 고테이 요정은 단골손님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게이샤가 대접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다다미 연회장과 춤, 노래, 연주 등을 선보이는 편백나무 무대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까지 시노노메초에는 이러한 요정이 최소 5채가 있었습니다.

### 고급 숙박 시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많은 상인과 무역상이 찾아오게 되면서 항구와 역 근처에 호텔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언와인드 호텔로 영업하고 있는 옛추야 호텔은 오타루의 첫 유럽식 호텔입니다. 오타루를 찾는 무역상과 상인이 증가하면서 1931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호텔은 근처에 있는 1877년에 문을 연 전통 료칸인 옛추야 료칸의 별관이었습니다. 이 옛추야 료칸은 1900년대 초부터

영어 가이드북에 게재되어 있었지만, 경영진은 모던한 고급 호텔이 외국인 손님에게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